#아르헨티나/#DRY/#WHITE

'트라피체의 플래그십 리세르바 와인!'

트라피체 레세르바 샤르도네

Trapiche Reserva Chardonnay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까베르네 쇼비뇽 (Cabernet Sauvignon)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테이스팅 노트	아삭아삭한 배와 레몬파이 향이 아로마를 형서한다. 입안에서 차분히 감도는 산미와 오크의 미묘함과 포도 본연의 내추럴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어 인상적인 구조감을 보이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육류/ 익힌 해산물/ 채소/ 익힌 채소/ 부드러운 치즈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트라피체 레세르바 샤르도네는 트라피체의 플래그십 리저브 와인으로 12개월 동안 오크 숙성하여 아르헨티나의 전형적인 떼루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막 와인의 세계에 입문한 초보자들이나 매일 마실 수 있는 편안하고 뛰어난 품질의 데일리 와인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0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